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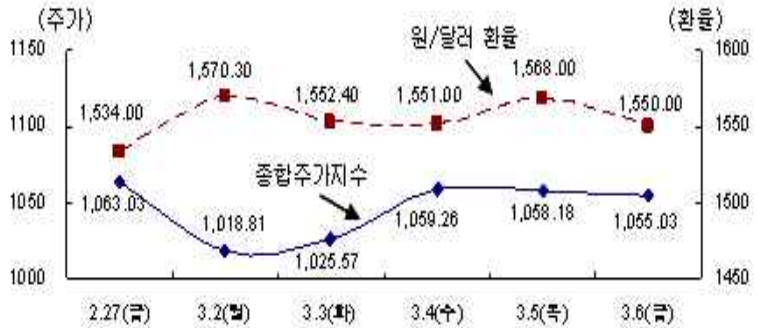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세계 경제 회복의 5대 복병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27~3.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세계 경제 회복의 5대 복병	1
주간 경제 동향	21
□ 실물 부문 :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21
□ 금융 부문 : 원/달러 환율 지속적 상승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임 희 정	연구 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	표 한 형	연구 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정 유 훈	선 임 연구 위원	(3669-4014, youhun@hri.co.kr)
		:	조 호 정	연구 위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세계 경제 회복의 5대 복병

1. 세계 경기 침체 심화

2009년에 들어서 세계 경기 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008년 10월 3.0%, 11월 2.2%, 2009년 1월 0.5%로 낮아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미국 금융시장 불안 양상 재연, 중국 대외 거래량 급감, 일본 제조업 침체와 역내 무역 붕괴, 러시아 및 동유럽의 국가 파산 도미노, 중동 건설 붐 소멸 등이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2. 주요국의 경기 회복 저해 요인

첫째, 미국 금융기관 부실이 전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BoA, 씨티그룹 AIG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급증할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까지 파급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해소가 어려운 것은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그리고 기업 대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부실 확산은 향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가중,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세계 실물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에도 원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의 대외 거래량 급감에 의한 경기 경착륙이다. 중국의 대외 거래량 급감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 경기 불안의 원인은 위안화 절상, 수출산업 경쟁력 취약, 수출시장 다변화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교역량 급감은 중국 국내 경기 침체 심화,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중국의 대외자산 처분 등에 의한 국제금융시장 혼란 가중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수출 부진세를 가속화시키고 대중국 투자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일본 제조업 침체와 역내 무역 붕괴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일본의 장기침체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제조업 침체의 원인은 일본 경제가 수출 의존적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엔고에 따른 수출 급감,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다시 장기 침체로 들어서는 것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일본의 對한국 투자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對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넷째, 러시아 및 동유럽의 국가 파산 도미노 위기이다. 최근 러시아 및 동유럽 신흥국들의 국가 채무 불이해 위기가 높아져 제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부도 위험 증가의 원인은 높은 대외 부채 의존도, 급감하고 있는 외자 유입,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이다.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 파산 위기는 서유럽 은행의 부실 확대와 연결되어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유럽의 동서간 분열 및 유로지역내 교역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내에서는 유럽계 은행의 對韓 외채 상환 압력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율 상승 요인이 증대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중동 건설 붐 소멸이다. 중동 경기 침체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중동 건설 붐이 소멸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 악화와 자산 가격 하락, 차입에 의존하는 투자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중동 건설 붐 소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동계 국부 펀드의 해외 투자 회수를 가져올 것이고 세계 건설 경기를 급속히 위축시킬 것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대중동 수출 둔화, 국내 건설업계 경영 악화,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3. 정책 대응 과제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 세계 교역량 급감, 일본 제조업 붕괴, 동구러시아중동 지역의 경제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에 대비한 유동외채 만기 연장과 환율 안정화 대책 등 외환시장 안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 교역량 급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상품의 무역 지원 체제의 강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 및 수입 관련 애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형 첨단 제품,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제조업의 붕괴에 대응하는 기회 요인을 발굴해야 한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제고하고 경합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동구러시아중동지역의 위험 회피를 위한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동구권 지역 등의 국가 부도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중동지역의 건설 붐 소멸에 대비,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세계 경제 회복의 5대 복병 >

세계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증대	
- 최근에 들어 미국 금융시장 불안 양상 재연, 동구권 금융 불안과 같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복병들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국의 경기 회복 저해 요인		
구분	구분	내용
미국	미국 전금융기관 부실 확산	- (원인) 주택가격 추가하락, 소비자금융 연체율 급증, 기업부실 규모 누증
		- (영향) 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세계 경기 침체 심화,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국내 경제 성장률 급락
중국	대외 거래량 급감에 의한 경기 경착륙	- (원인) 위안화 절상, 수출산업 경쟁력 취약, 수출시장 다변화 부족
		- (영향) 중국 경기 침체 심화, 국제 금융시장 혼란 가중, 한국의 수출 부진세 가속,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 악화
일본	일본 제조업 침체와 역내 무역 붕괴	- (원인)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로 전환, 엔고로 수출 감소,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
		- (영향) 동아시아 역내 무역 감소 가속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대한국 투자자금 회수, 대일본 수출 타격
동유럽	러시아, 동유럽 국가 파산 도미노	- (원인) 대외 부채 급증, 외자유입감소,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영향) 서유럽 은행 부실 확대로 세계 금융시장 혼란 가중, 유럽의 동서간 분열, 유럽지역 교역 규모 감소, 유럽계 외채 상환 압력 가중
중동	중동 건설붐 소멸	- (원인) 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 악화, 자산가격 하락, 차입에 의존하는 투자 구조
		- (영향) 중동계 국부펀드 해외 투자 회수, 세계 건설경기 위축, 대중동 수출 둔화, 국내 건설산업 수출 감소와 경영 악화,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대응과제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에 대비	- 유동 외채 만기 연장에 주력, 환율 안정화 대책 수립
세계 교역량 급감 극복 체제 강화	- 무역 관련 애로 요인 해소,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노력 증대
일본 제조업 붕괴 대응 기회 요인 발굴	- 엔고 시기에 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제고, 대일 경합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해외 국가 부도 리스크 관리 노력 제고	- 해외 국가 부도 사태 등 위기 관리를 위한 대응체제 확립, 해외 건설 급감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I. 세계 경기 침체 심화

○ 2009년에 들어 세계 경기 부진 양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008년 10월 3.0%, 11월 2.2%, 2009년 1월 0.5%로 낮아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하락
- 미국은 2008년 10월 0.1%, 11월 -0.7%, 2009년 1월 -1.6%로 성장률이 급락

< 주요국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단위: %)

	2007년	2008년(E)	2009(E)		
			IMF '08년10월	IMF '08년11월	IMF '09년 1월
세계	5.2	3.4	3.0	2.2	0.5
미국	2.0	1.1	0.1	-0.7	-1.6
유로지역	2.6	1.0	0.2	-0.5	-2.0
일본	2.4	-0.3	0.5	-0.2	-2.6
중국	13.0	9.0	9.3	8.5	6.7
중동	6.4	6.1	5.9	5.3	3.9
신흥경제국	-	-	3.3	2.1	-3.9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 November 2008, January 2009.
 2) 한국은행, Ecos., BEA, European Central Bank,

○ 특히, 최근에 들어 미국 금융시장 불안 양상 재연, 동구권 금융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로 경기 회복을 지연하는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필요가 있는 상황임
- 미국의 상업은행發 금융위기 재현, 중국의 대외 거래량 급감, 일본의 제조업 붕괴, 러시아·동유럽 국가의 파산 도미노, 중동 건설 붐 소멸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상

II. 주요국의 경기 회복 저해 요인

1. 미국 전금융기관 부실 확산

○ (현황) 미국 BOA, 씨티그룹, AIG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부실영향이 신용카드사까지 파급

- 대형은행 부실 : 정부의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실자산이 급증하면서 대형 상업은행의 지급 불능에 대한 우려 확산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 2008년 4/4분기 17.9억 달러의 손실을 내며 17년 만에 적자를 기록, 440억 달러에 인수한 메릴린치에서는 153억 달러의 손실로 총 171억 달러의 손실을 냈음
 - **씨티그룹** : 씨티그룹은 2007년 36억 달러 흑자에서 2008년에는 277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며 2007년 4/4분기 9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08년 4/4분기 82.9억 달러 손실까지 5분기 연속 적자 행진
- 금융위기 금융계 전체로 확대 : 미국 상업은행발 부실은 보험사, 신용카드사로 위기가 확산됨
 - **AIG** : AIG는 2007년 5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5분기 연속 순손실을 보이며 2008년 4/4분기에는 616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 **AMEX**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의 채무불이행율(=채납액/신용카드상액)은 2008년 12월 7.0%에서 2009년 1월 8.3%로 급증
- 금융위기 카드사로 확산 : 한편,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사를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 금융위기의 다음 희생자로 신용카드사가 부각되고 있음
 - 신용카드사는 이들에 비해 파생상품 위험 노출도가 낮은 덕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였으나 경기 침체 심화로 인해 연체율 및 채무불이행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우려감 증대

- 미국 은행 부실 규모 급증 : 미국 IRA(International Risk Analyst)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2009년 누적 자산상각(charge offs) 추정 규모가 1~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¹⁾
- 상위 4개 은행 부실 집중 : 미국 은행 부실 중 Citigroup, Bank of America, J.P. Morgan Chase, Wells Fargo 등 상위 4개 은행의 손실의 전체 손실의 66~75%를 차지
- 세계 금융기관 부실 규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1월말 전 세계 금융권의 부실자산 규모를 지난 2008년 10월의 1.4조 달러에서 2.2조 달러로 상향 조정²⁾
- 하지만 현재 진행된 자산상각 및 손실 규모는 1.1조 달러에 불과해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추가 확대될 여지도 아직 높은 상황

○ (원인)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해소가 어려운 것은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그리고 기업 대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 주택가격 추가 하락 : 미국 주택가격 하락은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³⁾되고 있어 프라임 등급의 주택대출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
 - 2008년 12월의 케이스-윌러(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150.7로 2006년 7월 고점인 206.5대비 27.0%나 하락, 2007년말 184.9 대비로도 18.5% 하락
 -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4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금융 연체율 급증 : 또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그리고 학생 대부 관련 버블의 붕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2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IRA, *The Big Banks vs. America : A Roundtable with David Kotok and Josh Rosner*, January 26, 2009. 참조

2)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GFSR Market Update*, January 28, 2009.

3) Robert J. Shiller, "Are We There Yet?",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9 참조.

- 현재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은 5.9%를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면, 동 연체율은 17%까지 상승할 전망
 - 한편 신용카드 연체율(charge-off rate)은 자산가격 하락과 실업 증가 등으로 최악의 경우 13%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기업의 부실 규모 누증** :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한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의 부채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압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09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대출 규모가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부실자산구제계획으로 투입하고 있는 7,000억 달러와 같은 금액임
 - 기업의 부채 규모가 2008년 3/4분기 현재 11조 112억 달러로 2007년 1/4분기 9조 6,103억 달러에 비해 14.6% 급증. 경기 악화로 추가 부실 가능성 상존

< 미국 기업의 부채 규모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7년				20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6,103	99,206	102,747	105,889	107,798	109,308	110,112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 신흥시장국 금융위기 확산, 세계 실물경기 침체 심화를 유발할 것임

- **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 금융기관들이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반면, 대출 기피 등 보수적인 자금을 운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부상하여 신흥시장국의 통화의 변동폭 확대가 장기화되고,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나라들의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세계 경기 침체 심화** : 미국발 신용경기 위축 심화로 세계 경기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도 큰 폭의 둔화가 예상
 - IMF에 따르면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국내 경제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
 -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 대형은행들의 손실 확대로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과 국내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조달의 애로 지속
 - 본지점에서 유동성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추가적인 유출 등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가의 신용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기업 및 은행들의 해외차입비용 증가 및 조달의 애로를 유발
 - **국내 경제 성장률 급락** : 미국발 신용위기의 확산 등 영향으로 세계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는 2009년에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기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유·무형 보호주의 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국내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마저 상존

2. 중국 대외 거래량 급감에 의한 경기 경착륙

○ (현황) 중국의 대외 거래량 급감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이어져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킴

- 중국의 對세계 거래량 감소 : 2008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08년 7월까지 중국의 대외 수출 누적 증가율은 22.6%에 달했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1월, 12월, 2009년 1월 연속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
 - 2008년 7월까지 중국의 수입 누적 증가율은 31.1%에 달했으나 8월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 11월, 12, 2009년 1월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

< 최근 중국의 수출과 수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

	2008년						2009년
	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8,029.1 (22.6)	1,348.7 (21.1)	1,364.4 (21.5)	1,283.3 (19.2)	1,149.9 (-2.2)	1,111.6 (-2.8)	904.5 (-17.5)
수입	6,792 (31.1)	1,061.8 (23.1)	1,070.7 (21.3)	930.9 (15.6)	749 (-17.9)	721.8 (-21.3)	513.4 (-43.1)

자료 : 중국 상무부.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중국의 국가별 거래량 감소 : 국가별 거래량은 2008년 10월 이후 거래금액 및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

< 중국의 국가별 수출과 수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

	수출					수입				
	1~9월	10월	11월	12월	09.1월	1~9월	10월	11월	12월	09.1월
미국	1891.6 (11.2)	236.5 (12.4)	203.6 (-6.1)	191.7 (-4.1)	172.9 (-9.8)	623.7 (21.4)	62.0 (10.2)	61.7 (-5.5)	67.5 (6.5)	49.5 (-29.9)
일본	859.2 (16.1)	102.8 (17.3)	100.0 (4.0)	99.7 (2.4)	82.3 (-9.0)	1167.7 (19.1)	128.9 (15.3)	104.4 (-14.8)	105.5 (-15.4)	62.7 (-43.5)
한국	571.8 (41.8)	65.6 (38.3)	52.6 (-3.3)	49.1 (-12.6)	37.3 (-29.1)	890.3 (17.9)	95.6 (4.9)	70.5 (-30.2)	65.2 (-30.0)	50.3 (-46.4)

자료 : 중국 상무부.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원인) 위안화 절상, 수출산업 경쟁력 취약, 수출시장 다변화 부족 등이 주요 원인

- 위안화 절상 :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상됨
 - 위안/달러 가치 : 위안/달러 환율은 2009년 2월 평균 6.84로 2008년 4월 평균 6.99에 비해 2.3% 가치 절상
- 수출 산업 경쟁력 취약 : 한중일 무역구조를 볼 때 중국 수출 제품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섬유, 조선, 기계와 같은 중국의 주력 수출 상품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품질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위안화가 절상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수출시장 다변화 부족 : 중국의 대외 수출은 상위 5개국에 50% 내외를 의존함으로써 경제 위기 발생 시 수출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
 - 중국의 주요 5개 수출국인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현재 48.5%로 거의 절반을 차지

○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교역량 급감으로 인한 중국 경기 침체 심화, 세계 경기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혼란 가중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킴

- 중국 경기 침체 심화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 60.6%로 무역급감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짐
- 중국 주식시장 버블 붕괴
 - 2009년 2월 말 주가지수 2082.9는 이전 고점인 2007년 10월 말 5954.8 대비 65.0%나 하락
- 중국 주택 가격 하락
 - 70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지수는 2008년 중반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2008년 12월 전년동월대비 -0.4, 2009년 1월 -0.9%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

- 국제금융시장 혼란 가중

-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대외자산을 매각할 때 국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증대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 12월말 현재 공식적으로 1조 9,640억 달러이나, Financial Times(2월 23일)에 따르면 2조 3,000억 달러까지 추정되고 이 중 1조 7,000억 달러가 미국 재무성, 연방기관 채권 등에 투자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 교역량 급감으로 수출 부진세 가속, 대중국 투자 기업 경영 악화가 예상됨

- 한국의 수출 부진세 가속

- 2008년 1~7월 동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평균 27.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8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2월 -33.3%, 12월 -35.4, 2009년 1월 -38.6%로 마이너스 증가로 전환
- 2008년 對중국 수출은 913.9억 달러로 對미국 수출 463.8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중국의 수출 격감은 국내 전체 수출 부진이 예상

< 한국의 對중국 수출과 수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

	2008년						2009년
	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572.8 (27.8)	85.4 (19.3)	80.9 (15.0)	74.5 (-3.5)	53.0 (-33.3)	47.1 (-35.4)	44.6 (-38.6)
수입	463.5 (32.0)	71.7 (37.3)	73.7 (47.2)	64.4 (8.4)	52.1 (-14.2)	43.9 (-22.6)	40.8 (-35.7)

자료 : 무역협회.

-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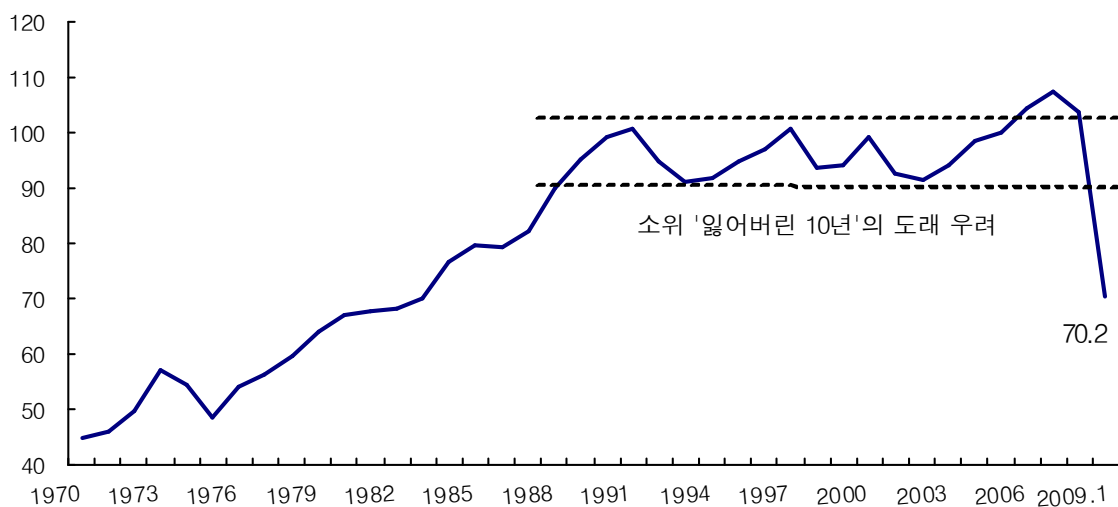
- 중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 투자가 이뤄진 기업들은 경영 악화가 예상
- 이유는 중국 내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급감함으로써 대규모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 현재 중국 수출의 60% 가량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한 것임

3. 일본 제조업 침체와 역내 무역 붕괴

○ (현황)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일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일본의 제 2차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제조업의 붕괴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일본 기업 도산 : 2008년 일본 상장기업의 도산건수는 33건으로 2002년 29건을 넘어서 전후 최대를 나타냄
- 도쿄상공리서치의 '도산월보'에 따르면, 2008년 도산건수는 전년대비 11.0% 증가한 15,646건에 이름
- 설비 투자 부진 : 4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감소폭마저 확대되어, 2008년 1/4분기 -0.6%에서 4/4분기 -5.3%로 악화됨
- 일본의 장기 침체 가능성 :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2005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의 광공업 지수는 200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함
- 특히, 버블 경제 붕괴 후 1991년의 광공업 지수가 100.9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2005년 100.0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9년 1월 70.2까지 급격히 하락함

< 일본의 광공업 생산 지수 추이 >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원인) 일본 경제가 수출 의존적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엔고에 따른 수출 급감,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제조업이 취약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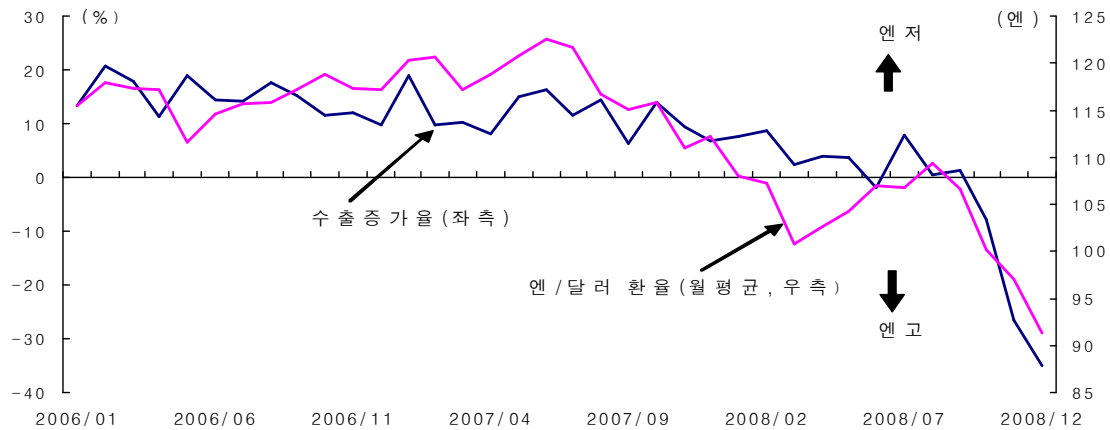
-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로 전환

- 2001년 10.6%에 불과하던 수출의존도는 2008년 16.2%로 상승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한 해외 수요 부족이 일본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2008년 4분기의 성장률에 대한 해외 수요의 기여도는 일본, 미국, 한국 각각 -12.7, 0.1, 3.0으로 일본이 외수에 의한 마이너스 기여도가 가장 높음
- 수출의존도가 16.2%까지 높아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높아 2008년 4분기의 전기대비연율로 -12.7%까지 급락함

- 엔고에 따른 수출 감소

- 엔/달러 환율은 2008년 연평균 103.3엔에서 2009년 2월평균 환율이 92.4엔으로 10.6%의 엔화 절상률을 보임
-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2008년 10월, 11월, 12월 각각 -7.8%, -26.7%, -35%로 급감함

< 엔/달러 환율 및 일본의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 :

- 1990년 버블 붕괴 후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대까지 과잉 설비와 과잉 부채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 1996년의 주택전문금융회사 문제와 1999년 다수 은행 파산 이후인 1997년, 2000년에 각각 전년대비 도산 부채 총액이 75%, 79%까지 상승함
-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기업의 부채비율이 1990년 240.1%에서 1998년 193.1%로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음

- 특히, 1997년에는 급격한 신용수축과 대출기피현상이 발생하였고, 2001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음을 내각부가 인정함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경제가 다시 장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면, 동아시아 역내 무역 감소,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우려됨
 - 동아시아 역내 무역 감소 가속화 :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를 가진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경기 회복에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
 - 일본의 대한국,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월 -42.3%, -45.2%까지 급락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동년동월 -42.5%, -16.2%까지 감소함
 - 2007년 기준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입 비중은 25.0%에 달하고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19.2%에 달함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리커플링(recoupling)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돌입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 및 아세안 국가 간의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90년대에는 각각 -0.61, -0.39, -0.38였음에 반해, 2000년대(00~07)에는 각각 0.92, 0.29, 0.78로 급격히 동조화 현상을 보임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경제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對한국 투자자금의 회수에 대한 가능성 증대, 對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됨
 - 對한국 투자자금회수 :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한국을 비롯 對세계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일본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對한국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일본으로부터 엔화로 빌려온 차입금의 총 규모는 1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2009년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만기규모인 677억 달러의 약 19.1%를 차지. 투자자금 회수 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음
 - 對일본 수출 타격 : 대일본 수출은 2008년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09년 1월에는 대일본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은 -38.2%을 기록하는 등 급감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리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가 각각 -68.0%, -11.1%, -48.0%, -54.0%을 기록함

4. 러시아, 동유럽의 국가 파산 도미노 위기

○ (현황) 최근 러시아 및 동유럽 신흥국들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높아져 제 2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⁴⁾

- 국가 부도 위기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1997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동시다발적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미 우크라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벨라루스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폴란드와 체코 등도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
- 이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대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2009년 2월말 현재(전년말대비) 큰 폭으로 절하됨

<러시아 및 동유럽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률 및 신용평가>

국가	IMF 구제금융 ⁵⁾	신용등급(Fitch)	통화가치 변화(%)
러시아	-	BBB+→BBB ('09.2/4)	-21.6
헝가리	157억 달러	BBB+→BBB ('08.11/10)	-24.6
폴란드	-	A- ('07.1/18)	-24.1
체코	-	A+ ('08.3/4)	-15.0

자료: 각 국 중앙은행, 국제금융센터

주 : 환율은 미달러화 전년말대비 2009년 2월말까지 변화율임.

- 러시아의 성장세 둔화 : 특히, 러시아의 경우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국제유가 하락과 외채상환 및 루블화 방어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큰 폭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됨
- IMF는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 불안 및 유가 급락에도 2008년 5.6% 성장하였으나, 2009년에는 -0.7%로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의 외환보유액도 2월 6일 현재 3,835억달러로 2008년 8월에 비해 2,146억달러 감소하였고, 민간부문 대외채무는 2008년 9월 4,980억 달러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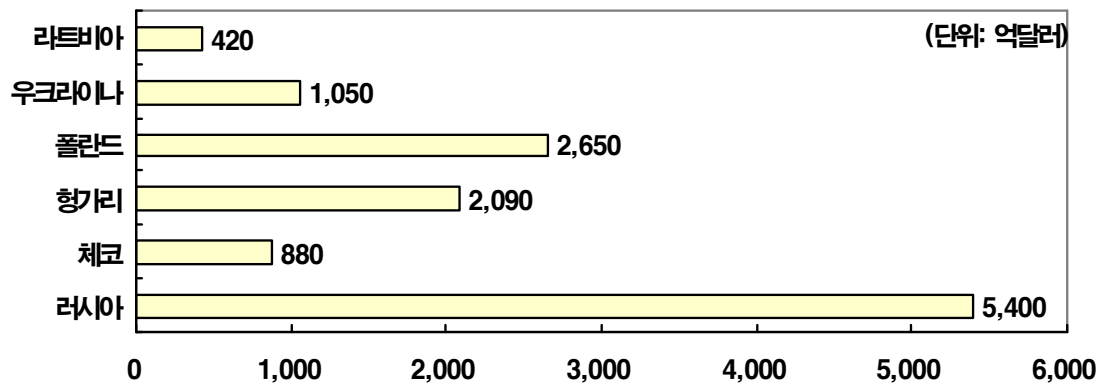
4)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 26일 세계경기 위기 확산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긴급대출지원을 현재 2,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

5) IMF는 우크라이나(165억 달러), 라트비아(97억 달러), 벨라루스(25억 달러), 그루지아(7억 5,000만달러), 세르비아(5억 2,000만달러) 등에 구제금융을 지원

○ (원인) 높은 대외 부채 의존도, 최근 급감한 외자유입 및 경상수지적자 지속 등이 국가 부도 위험 증가의 원인임

- 대외부채 급증 :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된 해외 투자자금 유입과 대외부채 급증이 최근 이들 국가의 통화 약세와 자금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됨
 - 2008년 3/4분기 기준으로 외채 규모는 러시아 5,400억달러, 헝가리 2,090억달러, 폴란드 2,650억달러, 우크라이나 1,050억달러 수준임
 - 부채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GDP대비 대외부채 규모는 2007년말 기준 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가 100% 이상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라트비아가 343%, 헝가리 158%, 폴란드 129% 달하는 실정임

< 러시아 및 동유럽 주요국 외채규모 (2008.3/4) >



자료: World Bank

- 외자유입 감소 : 국제금융연합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국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동유럽 국가로의 자본유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에 유입된 총민간자금 규모는 2007년 3,928억달러에서 2008년 2,542억달러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302억달러로 대폭 축소 전망
- 경상수지 적자 지속: 동유럽 국가들의 GDP대비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내수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2008년 기준(IMF 2008년 10월 전망치)으로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함

○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유럽 은행의 부실 확대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 유럽의 동서간 분열 및 유로지역내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서유럽 은행의 부실 확대로 세계 금융시장 혼란 가중: 유럽은행들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1.6조 달러로 추정되며, 러시아 및 동유럽의 도미노 디폴트 발생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총 대출규모 1.6조달러 중 약 4,000억달러가 2009년에 만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소 1/5에 해당하는 3,200억달러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총대출 규모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동유럽 대출 규모 현황>

국가	대출규모 (억달러)	서유럽 은행	대출비중 (글로벌자산 대비)
오스트리아	2,776	Raiffeisen(오스트리아)	43.0
독일	2,199	Erste(오스트리아)	33.6
이탈리아	2,196	KBC(벨기에)	15.1
프랑스	1,551	Swedbank(스웨덴)	13.5
벨기에	1,367	UniCredit(이탈리아)	11.0
네덜란드	1,222	SEB(스웨덴)	6.5
스웨덴	1,065	Societe Generale(프랑스)	4.7
스위스	5,86	Intesa Sanpaolo(이탈리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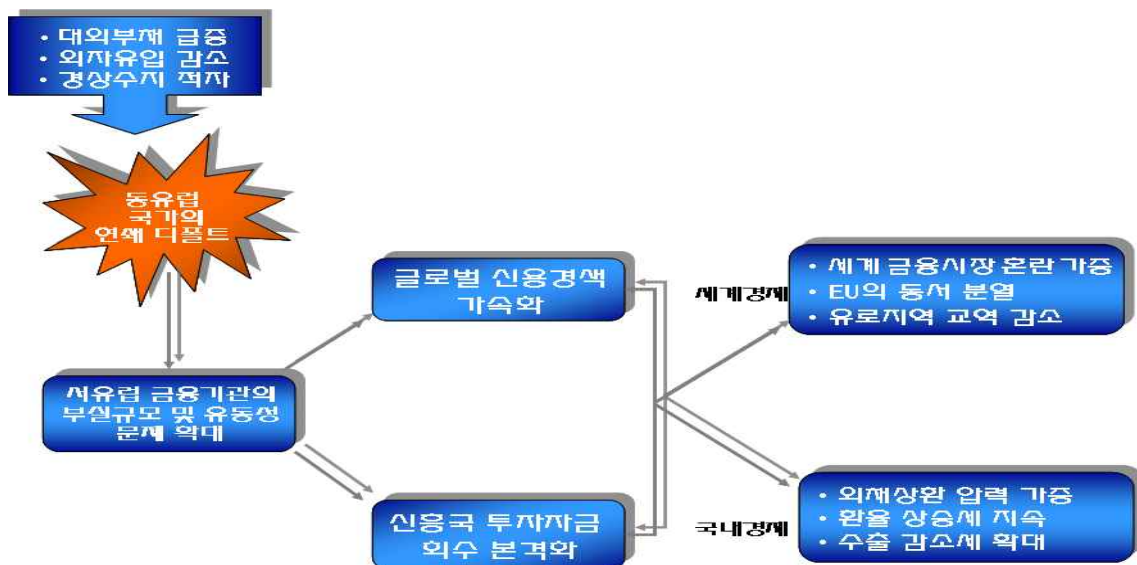
자료: BIS, 국제금융센터

- 유럽의 동서간 분열 : EU 회원국이나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⁶⁾들에서 파산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및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의 통합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럽내에서 동·서로 분열될 수 있음
- 특히, 세계은행, EBRD, EIB(유럽투자은행) 등이 동유럽에 310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3월 1일 EU 정상회담에서 헝가리가 동유럽 9개국을 대표해 요청한 1,900억유로의 특별 지원기금 조성안은 거절됨
- 유로지역 교역규모 감소 : 서유럽의 대 동유럽 수출 비중과 FDI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동유럽 내수 위축으로 서유럽의 수출입이 크게 둔화될 것임
- 유로존의 대외 수출 중 러시아 및 동유럽 비중은 3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6) EU 회원국인 동유럽 9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국가부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9개국 중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1일 유로존에 가입되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음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및 동유럽의 국가 파산 위기가 지속된다면 유럽계 외채 상환 압력 가중, 환율 상승세 지속 및 수출 감소세가 확대될 것임
- 유럽계 외채 상환 압력 가중 :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의 파산은 신흥시장 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과 상환 압력을 가중시키고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3/4분기 말 기준 한국의 대외채무 3,205억 달러 중 유럽계 자금은 2,093억달러로 66%를 차지함
 - 환율 상승세 지속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채무 상환압력이 높아지고, 해외투자자의 순수출이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5일 기준으로 전년말대비 24.5% 하락하였고,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수출 감소세 확대 :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의 경기 침체와 국가부도 발생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 2008년말 기준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37억달러로 전체 4,220억 달러의 8.0% 수준
 -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21.7%이나 러시아 및 동유럽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2.6%, -43.2% 급감

<동유럽 국가의 디폴트 도미노 영향 예상도>



5. 중동 건설 붐 소멸

○ (현황) 중동 경기 침체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중동 건설 붐이 소멸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중동 경기 침체 : 중동 경기 침체 정도는 세계 경기 침체보다는 약하나, 2008년 6.1%에 비해 2%p 이상 하락한 3.9% 예상
 - 중동지역에 대한 IMF의 작년 11월 전망은 5.4%였으나, 2009년 1월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 침체 악화에 의해 1.5%p 하락시킴
- 중동 건설 붐 위축 : 민간 자금을 사용하는 민간 프로젝트는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이 곤란해져 중지 또는 지연이 예상
 - 중동 건설시장은 2007년 기준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임
 - 그러나 쿠웨이트 외무장관은 개발 프로젝트의 약 60%가 연기 또는 중지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전 재개발 입찰 등이 중지되었고 두바이의 부동산 산업이 재검토 중에 있음

< 중동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망치	
				2008.11 발표	2009.1 발표
세계	5.1%	5.0%	3.4%	2.2%	0.5%
중동지역	5.7%	5.9%	6.1%	5.4%	3.9%

자료 : IMF.

○ (원인) 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 악화, 자산가격 하락, 두바이의 차입 위주 투자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 악화 :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급락에 의해 중동 산유국 재정 수지 악화

- 작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2008년 2/4분기 136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후 3/4분기 87달러, 4/4분기 36달러로 하락세를 보임
 -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두바이 유가를 2008년 배럴당 평균 94.29달러에서 2009년 평균 53.25달러로 43.5% 하락 전망(2월 2일 시점)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자드와 인베스트먼트는 2009년 평균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에 머물 경우 사우디는 21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자산 가격 급락** :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 여력 약화 심화
 - 두바이 부동산 가격은 2008년 1/4분기 43%, 2/4분기 16%, 3/4분기 5% 증가세에서 4/4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영국 HSBC 은행은 추정
 - GCC에 있는 7개 증권시장인 두바이,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에서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두바이의 경우, 2008년 1월 6,109까지 치솟았으나 2009년 2월 12일 1,508까지 급락
 - **차입에 의존하는 투자 구조** : 걸프만 지역에서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을 보인 두바이는 차입에 의존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정부 관련 두바이 기업들이 차입한 금액은 거의 500억 달러에 육박, 두바이의 2006년 GDP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
 - 씨티그룹은 두바이가 부동산, 금융, 관광 부문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
-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동 건설 붐 소멸은 중동계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감소를 유발하여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킴
- **중동계 국부펀드 해외 투자 회수** : 중동지역의 경제 리스크 확대로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에 대한 중동계 국부펀드의 투자가 위축
 - **세계 건설 경기 위축** : 중동 지역의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의해 세계 건설 산업 경기가 축소될 것임

7) 2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UAE 중앙은행은 두바이가 발행한 200억 달러의 무보 증 5년 만기 채권 중 절반을 인수키로 함으로써 100억 달러의 구제 금융 예정.

○ (국내에 미치는 영향) 대중동 수출 둔화, 플랜트 수주 실적 급감,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를 초래

- 대중동 수출 둔화 : 2009년에는 중동 시장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 대중동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 2008년 대중동 수출 금액은 26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6.3% 비중 차지
- 국내 건설 산업 수출 감소와 경영 악화 : 특히 중동경제가 재정 곤란에 빠질 경우, 이 지역 플랜트 산업 등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어 국내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
 - 2008년 중 국내 플랜트 산업은 중동에서 200억 달러의 수주를 실현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전세계 플랜트 수주 실적 중 43%에 해당

< 한국의 지역별 플랜트 수주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증감율	
계	42,162	100	46,207	100	10	
지역	중동	12,265	29	20,031	43	63
	아시아	11,572	27	6,069	13	-47
	아프리카	7,934	19	2,314	5	-70
	유럽	6,556	16	5,450	12	-16
	미주	3,835	9	12,343	27	221

자료 : 지식경제부.

-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한 국부펀드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동 3국의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액은 2008년 8월 4,845억 달러에서 2009년 1월 1,030억 달러로 급감
 - 특히 2008년 8월 5,305억 원 순매수한 사우디아라비아가 2009년 1월 528억 원으로 순매수액이 급감

III. 정책 대응 과제

○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 세계 교역량 급감, 일본 제조업 붕괴, 동구·러시아·중동 지역의 경제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중에 대비한 외환시장 안정책 마련

- 유동외채 만기 연장 주력

- 국제금융위기의 장기화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지속으로 만기 1년 미만의 유동외채에 대한 상환 압력이 가중된다면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감소와 원화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⁸⁾
- 유동성 공급 대책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원화 환율 안정화 대책 주력

- 한미간 통화스왑 협정 확대, 금융권의 해외 외채 감소 노력 증대와 같은 외화 유동성 공급 대책의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 세계 교역량 급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상품의 무역지원체제 강화

- 무역 관련 애로 요인 해소

- 수출 및 수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지원 체제 구축
- 중소기업 들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 확대
- 해외 시장 분석 정보 제공 기능 활성화

8) 우리나라의 유동외채 비율은 2008년 말 현재 2007년 말 대비 18.6% 상승하여 1999년 8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6.4%를 기록.

- **고부가가치화 노력 제고**

- 미래형 첨단 제품 개발 지원 : 미래형 자동차 등의 첨단 제품 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고도화로 제품 경쟁력 제고
-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 촉진 :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R&D 세제의 한시적 우대 조치 도입, 신기술 융합 제품의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

○ **일본 제조업의 붕괴에 대응하는 기회 요인 발굴**

-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 엔고에 따라 대미, 대중 수출 감소폭이 한국이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엔고 시기에 기업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R&D 투자 제고

- **경합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 특히 경합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브랜드 및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가 요구

○ **중국·동구·러시아·중동지역 위험 회피를 위한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 **동구권 국가 부도 발생 등 금융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제 확립**

- 세계 각국의 금융 및 실물 경제를 분석하고 국가부도 문제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국내 경제와 해외 진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

- **해외 건설 급감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 특히 중동지역 건설 붐 소멸에 대비하여 국내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안전 대책 수립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전년동월대비 5.4%)과 공업제품(전년동월 대비 5.0%)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함

-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2.1%, 축산물은 12.8%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5.4%를 나타냄
- 공업제품은 석유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5.0%를 기록함
-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3%, 전월 대비 0.8%을 기록하며 안정세로 진입
- 소비자물가의 일시적 반등은 계절적 요인, 정부정책의 시차효과, 그리고 환율 인상분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5.0	2.8(-3.5)	5.8(0.8)	4.8(0.8)	3.8(0.5)	-3.4(-5.6)	-	-	
	수요	소비재판매	5.2	0.9	4.4	2.9	1.4	-4.6	-3.1	-
		설비투자추계	9.2	-3.2	-0.7	-0.5	5.3	-16.2	-25.3	-
		건설수주	23.6	-9.0	-3.7	-6.1	-22.7	-6.5	-15.0	-
		수출	14.1	13.6	17.4	23.1	27.0	-9.9	-33.8	-
	공급	광공업생산	6.8	3.3	10.6	8.6	5.6	-11.3	-25.6	-
		취업자수(만명)	2,343	2,358	2,305	2,387	2,373	2,367	2,286	-
		실업률	3.2	3.2	3.4	3.1	3.0	3.1	3.6	-
수입		15.3	22.0	28.9	30.5	42.8	-9.0	-31.9	-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60	-16	-52	-1	-86	75	-13.6	-	
	무역수지(억\$)	146	-132	-66	-3	-79	15	-34	-	
물가	생산자물가	1.4	8.4	5.1	9.0	11.3	8.0	4.7	-	
	소비자물가	2.5	4.6	3.8	4.8	5.1	4.5	3.7	4.1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원/달러 환율 지속적 상승

○ (해외 금융 시장) 미 달러화 강세 지속

- **금리**: 미국의 공장수주 6개월 연속감소 등의 경제지표 부진, 중국정부의 추가적 경기부양책 미발표에 따른 증시 급락 등으로 연준(FRB)의 국채매입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3.01→2.81%)
- **환율**: 엔화는 일본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달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글로벌 증시의 폭락과 ECB의 기준금리 인하(0.5%p) 후 추가 인하 시사 발언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며 대폭 약세 (\$/€ : 1.2669→1.2540, ¥/\$: 97.58→98.07)

○ (국내 금융 시장) 국채 금리 대폭 하락

- **주가**: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와 순매도가 반복되면서 전주말 대비 약보합 (1,063.0→1,055.0)
- **금리**: 국고채 입찰 부진과 소비자 물가 상승(4.1%)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의 국채선물의 대규모 순매수세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 3.82→3.63%)
- **환율**: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문제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 우려감으로 1,600원대에 육박하였으나, 외환당국의 개입과 역외선물환(NDF) 시장의 달러 매도세에 힘입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전주말 대비 상승 (1,534.0→1,550.0)

○ (전망) 달러화 고점에 대한 인식 확대로 원/달러 환율 상승 제한될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2.27	3.6 ¹⁾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063.03	1,055.0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82	3.63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534.0	1,550.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7,062	6,594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7,568	7,433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3.01	2.81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28	1.32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2669	1.2540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7.58	98.07
	두바이(\$/바レル)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4.05	43.9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5) 기준.